

■ 본지 연재 '가야산 정진불' 회향한 작가 정찬주

# “새벽이면 회파람새가 옵니다”



작가 정찬주씨. 승군의 입장에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작품을 구성 중이다.

和順. 지명으로 이만큼 포근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어감도 부드럽거니와 빵에 스치는 바람결이 잔잔하다. 언제 겨울이었던가 싶다.

본지에 지난 1년 동안 연재했던 구도소설 '가야산 정진불'이 대미를 장식했다. 작가 정찬주는 순하디 순한 화순의 쌍봉사 너머에 산다. 쌍봉사를 감싸고 있는 산이 들관으로 몸을 바꾸는 즈음에 이불재(耳佛齋)가 있다.

“매화꽃이 곧 필 것 같습니다. 새벽이면 회파람새가 옵니다”라는 말로 기사를 받겨주었다. '가야산 정진불'은 지난해 1월 연재를 시작해 60회를 달려왔다. 돌아보니 꽤 먼 길이였다.

“마라톤을 완주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려웠지요. 이전의 소설들과 구성을 달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제가 사는 산방에서 가까운 봉갑사에 해암 큰스님의 사리가 봉안돼 있었기 때문에 구성의 실라레가 쉽게 풀려졌던 것 같습니다. 해암 큰스님의 영통한 사리를 친견하는 것으로 소설을 시작하니 구성이 술술 풀렸습니다. 중간에 고비도 있었습디만, 원각 스님과 각안 스님, 현오 스님의 도움으로 한 회도 거르지 않고 회향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를 신문사에 송고해놓고는 이를 동안 내내 죽은 것처럼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일상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디다.”

## 해암 큰스님은 말법시대 밝히는 등대 극기·자비 등 고승 삶으로 보여주고

우문을 던졌다. 선생님께서 '가야산 정진불'을 통해 그리고 자 했던 것은 해암이라는 큰스님 이면서 동시에 '장좌불와를 하는 것이 이뤄고'를 깨달은 대연 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작품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대연 거사는 해암 큰스님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지만 작가인 제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런 소설을 액자소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독자는 왜 해암 큰스님 얘기만 쓸 것인지 상상의 인물까지 복잡하게 서술하느냐고 물려군요. 그러나 대연 거사가 마지막 회에 화두 드는 것을 보고는 해암 큰스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좋아하실 거라고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의 의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디다. 이 소설을 통해서 재가불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화두를 들고 '자기가 누구인지' 본래면목을 묻는다면 조금이라도 성공한 불교소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교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소설가라는 이니셜이 더 편합니다. 어쨌든 불가의 인연이 깊다 보니 그리 불리게 됐습니다. 저는 고승을 소재로 소설을 쓸 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국민의 뛰어난 덕목이라고나 할까요. 예컨대 자기를 극복하는 극기,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 같은 인간적인 덕목을 고승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지요. 국민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진정한 한국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원호 대사나 사명 대사 같은 분은 지금도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러한 인간적인 덕목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일깨우고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하지요.”

—선을 그어 이것과 저것을 가르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활발한 불교문학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시 우문. 불교문학, 특히 소설의 생산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불교문학의 역할이 적지 않은데, 흥작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교문학을 우리 불자들 일부가 주변문학 혹은 변두리문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요. 불자 내부에서부터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두 분의 조계종 종정, 두 분의 현대고승을 소재로 해서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 어느 분으로부터도 격려의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어요. 신라시대에는 불교문학이 중심부 문학이었습디다. 신라 향가를 보시면 알 겁니다. 고려시대 때도 불교문학은 대단했지요. 동국대가 종립대학인데 불교문학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언론 매체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의 깊이와 다양성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문학에 대한 반성과 창작 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작품에선 어떤 세계를 펼쳐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임진왜란을 승군의 입장에서 한 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임진왜란은 종교전쟁 측면도 있습니다. 왜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카의 군대는 중군 신부가 가담한 기독교 군대였으니까요. 또한 거북선을 승병장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지요. 짚에 가련 볼 수 있는데, 고승 탑비의 석물이 거북과 용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거북선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승군역사를 한 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알리고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가야산 정진불'은 5월 초 해암 스님의 생신일 즈음에 책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온다. 랜덤하우스에서 눈여겨보았다고 한다. 영어나 출간도 기대해 볼만하다.

정성민 기자 woon1653@hanmail.net



## 추노 열풍 속 절경 인기

최근 KBS 2TV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추노'가 인기다. 일명 '추노 열풍'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새로운 관심사로 급부상한 추노는 드라마 전개를 비롯해 제작스토리, 배우의 사생활까지 모두 '핫 이슈'로 떠오를 만큼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와 화려한 영상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추노의 촬영지도 이슈다. 추노의 촬영 로케이션 담당자인 윤종훈 디렉터가 "지금껏 사극에서 촬영되지 않은 촬영지를 섭외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다"고 말할 만큼, 추노의 촬영배경은 그야말로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들 정도로 수려한 장관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촬영지로, 장소 중 대다수가 사찰 풍경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까지 추노에서 소개된 사찰들은 전남 화순군 운주사, 구례 사성암, 여주 신복사, 해남 도솔암 등이다. 그 중 구례 사성암과 해남 도솔암은 윤종훈 디렉터가 꼽은 가장 경관이 좋은 사찰이다.

윤주사 관계자는 "드라마 등에서 윤주사 풍광이 소개되고 나서 평소보다 관광객이 2~3배 정도 늘었다"며 "최근에는 주말마다 1500여 방명객이 윤주사를 찾는다"고 말했다.

최근 TV나 영화에 소개된 촬영지를 필수여행코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윤주사를 찾는 대중의 발길이 찾아진 이유이다. TV,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대중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

촬영지를 담은 사한 이들이 깨닫는 인블로거 등에 또 다시 윤주사 등을 소개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정재형 교수는 "미국에서 드라마가 성행하면 드라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슈화가 됐다. 일명 '미드열풍'이 분 것 처럼,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화 돼 가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점점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풍족해 지면서 여가와 레저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드라마 속 사찰들이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화순 윤주사의 약물.

## 서울서예박물관서 행오 스님 사경전 열려

10여 년 넘게 사경으로 수행해 매진해 온 행오 스님(서울 김상암 주지)이 3월 4~10일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사경전을 개최한다. 이번 '제7회 서예문화 축전 야행오 사경전'은 서예문화대전 서예축전의 사경부문 우수작가 초대전으로 이뤄진 전시이다.

행오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전통사경과 현대사경 등 약 30여점에 달하는 사경작품을 전시한다. 금니, 은니, 경면주사, 묵서 등으로 그린 관자본, 절첩본, 선장본인 전통사경부터 액자, 족자, 병풍 등으로 표현한 현대 사경까지 다양한 사경의 세계를 선보인

다.

행오 스님은 "사경은 서예의 영역을 심화시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예계에서 홀대받아 온 경향이 있다"며 "이번 전시가 많은 분들에게 사경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화엄경 약찬계> <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 <수월관음도+반야심경> <금강경-8폭 병풍> <반야심경> 등의 주요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 대구불교박물관 (대구엑스코, 3월 18일부터 ~ 21일까지) 에 오시면 직접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수제화 고무신코만 행화

**특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진회색

**특무명 3쪽**

- 가격: 120,000원
- 규격: 220-280mm (5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최고의 선들**

**지압·동 깔창**

지압동 깔창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자연색

**조각무명 3쪽**

- 가격: 120,000원
- 규격: 220-280mm (5mm단위)
- 색상: 회색

**가게 20,000원**

• 사이즈: 230-280

**사계절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밴드**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85mm
- 색상: 검정, 회색

**망사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콘**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85mm
- 색상: 검정, 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인) 할장

■ 대표전화: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